

# 軍陣醫書 『行軍方便便方』의 구성과 내용\*

오준호<sup>1\*\*</sup>

## Composition and Contents of 『Haeng Gun Bang Pyeon Pyeon Bang』, a Military Medicine Literature

Oh Junho<sup>1\*\*</sup>

<sup>1</sup>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 Features of military medicine and war pattern at the time

**Methods :** 『Haeng Gun Bang Pyeon Pyeon Bang』, military medicine literature, that allows pattern of ancient war to be inferred was considered. First, background of this literature formation was examined, and the contents included were arranged based on table of contents. Lastly, pattern of war at the time and role of military medicine were studied through the meaning of times and medicine in this book.

**Results :** This book was written by Naseyo(羅世瑤, of an unidentifiable period), an intellectual of Qing Period(清代) in the 2nd year of Emperor Xianfeng(咸豐 2, 1852). It was composed of total 3 volumes and a book, and 684 prescriptions were written under 6 large sections(大門).

**Conclusions :** This book was written in the middle of spirit of the times of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caused by defeat in the Opium War and popular publication in a series, an academic current of the times. Though there were many treatments about external wound in this book, thoughts of armed forces and combat by people of the time were reflected, including drying method(乾法) making portable foods, drinking control method(戒酒法) to resolve drinking(飲酒) problem in the armed forces, treatment method of infectious disease, information collection method from enemy troops by confession, and various treatments for diseases of military horse. It is expected that this book will be good material for studies in the field of military medicine and used as material for diverse combination studies such as history and military science.

**Key words :** military medicine, Haeng Gun Bang Pyeon Pyeon Bang, the Opium War

## I. 서론

전쟁은 인류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동안 전쟁을 거듭해 왔으며 역사의 교차점에는 늘 전쟁이 자리하고 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전쟁은 월등한 능력을 가진 장군이나 놀라운 전략 전술을 중심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전쟁은 결정적인 전술의 차이가 없는 한 병사와 군마의 수에 의해 성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전통사회에서 군사력의 핵심은 병사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구해내는 일이었을 것이

\*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고문헌 기반 <한의학전지식DB서비스> 개발(K1411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교신저자 : 오준호.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3.

E-mail : junho@kiom.re.kr Tel : 042)868-9317  
투고일 : 2014년 1월23일 게재일 : 2014년 2월10일

다.

군대 내의 의학을 따로 ‘군진의학(軍陳醫學)’이라고 지칭한다. 전쟁에 대비하는 군대라는 조직, 전시에 발생하는 질병의 속성이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군대라는 공동체 속에서 병사들은 심리적인 공포와 육체적인 과로를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밀집생활을 통해 전염병의 걸릴 가능성도 높다. 뿐만 아니라 전투 중에 발생하는 의상은 일상생활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군진의학이 지향점은 일반 보건의료가 목적하는 것과 다르다. 군진의학에서는 제한된 약재, 한정된 시공간 속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을 보존해야 한다. 여기에는 양생(養生)을 통한 질병 예방법이나 복잡한 구성의 탕제(湯劑) 치법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먹고 자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하며, 약재는 구하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것만을 휴대가 간편하도록 가공해야만 한다.

‘군진의학’은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긴 시간 동안 동서고금에 존속해 왔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응급의학이나 스포츠의학 등 다른 의료 분과와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또 군진의학 속에 담겨져 있는 식량에 대한 고민은 저장식이라는 측면에서 유용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간 전통지식으로서 군진의학에 대해서 별다른 연구가 진척되지 못하였다. 이는 전통의학 자료 가운데 군진의학과 관련된 서적이 희소한 까닭도 있겠지만 군진의학 자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적었기 때문이다.<sup>1)</sup>

본 연구는 제1차 아편전쟁 이후에 간행된 『행군방편편방(行軍方便便方)』이라는 군진의서(軍陣醫書)의 내용을 통해 당시 지식인이 바라보았던 전쟁과 군진의학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군

진의학의 모습을 조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II. 본 론

### 1. 成書背景과 저자 羅世瑤

『행군방편편방』은 청대(清代) 나세요(羅世瑤, 연대미상)가 함풍 2년(咸豐2, 1852) 저술한 군진의학 전문 서적이다. 책 제목의 ‘편방(便方)’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중국식 표현으로, 우리에게 ‘간이방(簡易方)’ 혹은 ‘이간방(易簡方)’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책의 제목은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처방”을 뜻한다.

저자 나세요는 호남(湖南) 신화(新化) 사람이다. 그는 본래 문인(文人)으로 의업(醫業)에 몸담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계기로 의서를 보기 시작하였다.<sup>2)</sup> 이 책에 의서(醫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필기류(筆記類) 서적들이 다수 인용된 것은 그가 가진 문인으로서의 소양 때문이다.

나세요가 자신의 병과 상관 없는 군진의서를 3권이나 되는 분량으로 엮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 책은 아편전쟁이 한창이던 1852년 저술되었다. 더 정확히는 제1차 아편전쟁(1839-1842)이 끝난 뒤에 저술과 간행이 이루어졌다. 당시 중국은 민족적 위기감 속에서 광둥(廣東) 지역을 중심으로 위정자들의 실정에 대한 분노가 심화되었고, 분노는 조정 대신, 패관 자본가, 지방장관들을 향하고 있었다.<sup>3)</sup>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더욱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부국강

1) 전통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현숙, *몸, 질병, 권력: 통일전쟁기 신라의 군진의학. 역사와 문화*, 6:11-41, 2003.

박상영, 한장현, 안상영, 권오민, 안상우, 『軍中醫藥』 翻譯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3(1):31-46, 2010.

范行准, 中国古代军事医学史的初步研究(一). 人民军医, 3:42-50, 1957. 의 연작논문 6편

2) 『行軍方便便方』「序」 “(책이 몰았다) ‘일찍이 의학을 익힌 적이 없는데도 방서를 모은 것은 어찌서입니까?’ (내가 답하였다) ‘나는 1년 내내 여러 가지 병을 앓아서 『영추』와 『소문』 및 여러 본초서들을 조금씩 열독하였는데, …… 나는 번번이 이것들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다른 책 가운데 섭렵 가능한 것도 간간히 채록해 두었다가 때때로 책상머리에 두고 스스로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其夙不習岐黃而集方書何也? 僕通年來時擾多疾, 稍閱靈素及諸本草書, …… 輒手錄之, 並他書涉獵所及, 閒亦摘採之, 時置案頭以自便也)

3) 이강범, 아편전쟁 전후에 제기된 지식인의 윤리문제.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7:178-179,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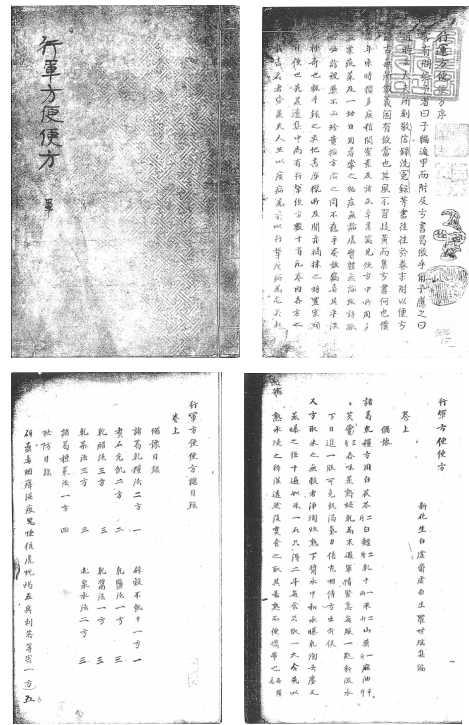
병(富國強兵)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이어졌다. 文人이었던 나세요가 군진의의서(軍陣醫書) 저술을 결심한 것은 지식인으로서 가졌던 사회적 책임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 책이 군진의의서로서 3卷이라는 적지 않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당시 지식 유통 구조에 힘입은 바 크다. 그가 생존하였던 청대에는 각종 필기(筆記) 및 총서(叢書)들이 유행하여 대량의 지식들이 정리되고 유통되었던 시기였다.<sup>4)</sup> 게다가 저자 자신이 문인으로서 이 서적들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의서에서 군진의의학에 사용할만한 많은 지식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나세요가 군진의의학이라는 드문 주제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집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조건에 힘입은 바 크다.

현재 이 책은 청 함풍 2년(1852) 임자(壬子) 초각본(初刻本)이 전해져 중국 내 10여개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sup>5)</sup> 또 명청대(明清代) 영향력 있고 대표성 있는 의서들을 수록한 『삼삼의서(三三醫書)』(1924)<sup>6)</sup> 안에도 전재되어 있다.<sup>7)</sup> 일제강점기 조선의학사 연구로 유명한 미키사카에(三木榮, 1903-1992)도 이 책의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현재 일본(日本) 교우우쇼오쿠(杏雨書屋) 미키사카에분코(三木榮文庫)에 보관되

어 있다. 1993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를 영인하여 복사본으로 소장하고 있다.<sup>8)9)</sup>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미키사카에분코 복사본과 『삼삼의서』 수록본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미키사카에 소장본(국립중앙도서관 사본)

## 2. 『行軍方便便方』의 구성과 내용

본서는 3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세요는 역대 의학 기록을 참고로 외상(外傷), 해독(解毒), 구급(救急) 등 군사작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하여 서술하고 치법을 제시하였다.

- 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기호 : 古7670-15, 所藏記에는 “複寫本, 上下卷1冊(80張) : 10行24字 註雙行 ; 24.5 x 17.8 cm, 원본소장기관: 日本 三木榮文庫所藏 (300-281)”라고 적혀 있다. 소장기에는 “上下卷1冊”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上中下卷1冊으로 이루어져 있다.
- 9) 우리나라에도 국민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Available from: URL: <http://www.nl.go.kr/korcis> 검색 결과 (2012.01.10 기준)

- 4) 명청대 형성된 각종 筆記 및 叢書들은 조선 의학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 자세하다. 박상영, 오준호, 권오민. 朝鮮後期 韓醫學 外延擴大의 一局面.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7(3):1-8. 2011.
- 5) 『中國中醫古籍總目』에 따르면 清咸豐2年壬子(1852) 初刊本이 中國科學院國家科學圖書館, 中國中醫科學院圖書館, 北京中醫藥大學圖書館, 河南省圖書館, 內蒙古自治區圖書館, 遼寧省圖書館, 黑龍江中醫藥大學圖書館, 上海中醫藥大學圖書館, 蘇州大學醫學院圖書館, 雲南省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薛清泉. 『中國中醫古籍總目』.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p.328. 2007. 분류번호 04017 『行軍方便便方』
- 6) 『三三醫書』는 裘慶元(1879-1948)이 편찬하여 1924년 간행한 의학 총서류에 해당하는 서적이다. 모두 3集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33종의 의서가 실려 있어 모두 99종의 의서를 담고 있다. 각과를 막론하고 明清代 비교적 영향력 있고 대표성 있는 의서들을 수록하였다. 『行軍方便便方』은 第3集 가장 말미에 위치하고 있다.
- 7) 『三三醫書』 수록본에는 서문과 목차가 없다.

저자는 책의 첫머리에 있는 서문에서 책의 편집 동기 및 과정을 설명해 놓았다. 그는 군사 작전을 수행하면 병에 걸리기는 쉽지만 치료법을 찾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sup>10)</sup>, 자신이 질병을 앓던 차에 의서를 읽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재료들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처방들을 알게 되어 군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자는 이미 당시에 『기방류편(奇方類編)』<sup>11)</sup>, 『회집양방(彙集良方)』<sup>12)</sup> 등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처방들을 모아 놓은 방서들이 있었으나 군사작전 중에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sup>13)</sup> 약성이 강한 처방이나, 구하기 어려운 약재를 배제하여 이 책을 꾸몄다고 밝혔다.<sup>14)</sup>

본서는 군진 의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 역시 다른 서적들과는 차이가 있다. 저자는 책 전체를 「비에(備豫)」, 「두방(杜防)」, 「요상(療傷)」, 「유질(愈疾)」, 「구해(救解)」, 「유여(遺餘)」의 6개의 대문(大門)으로 꾸미고, 그 아래 684개의

처방들을 수록하였다.

## 2.1 「비에(備豫)」

저자는 군사 작전 중에 굶주림이 질병보다 더 큰 문제임을 인식하여 「비에」를 6개의 大門 가운데 처음에 두어 강조하였다. 「비에」에는 식량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음식의 양을 줄여 휴대와 보관을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들로 일종의 휴대식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를 「건법(乾法)」이라고 하였다.

첫머리에 나오는 제갈건량법(諸葛乾糧法)에서는 백복령(白茯苓), 밀가루(白麪), 건강(乾薑), 쌀[米], 마[山藥], 마유(麻油), 검실(芡實)을 찌서 익힌 뒤에 열을 가해 말리고 가루 내어 휴대식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 가루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면 허기를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5)</sup>

이 외에 건염법(乾鹽法), 건조법(乾醋法), 건장법(乾醬法)에서는 각각 소금, 식초, 장을 휴대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건조법을 보면, 매실(烏梅)을 식초에 담구었다 꺼내 말리기를 반복하고, 이를 가루 내어 환으로 만든 다음 필요할 때에 끓는 물에 1~2환을 넣으면 좋은 식초가 된다고 하였다.<sup>16)</sup>

건다법(乾茶法)은 마시는 차가 아니라 일종의 기호품을 만드는 방법이다. 백당(白糖), 박하, 백복령, 감초를 곱게 갈아 꿀로 대추만하게 환을 빚어 만드는데, 한 알을 먹으면 천리길을 행군할 수 있다고 하여 「천리차(千里茶)」라고 불린다고 하였다.<sup>17)</sup> 약재 구성으로 보았을 때 달고 맛있어 지

10) 『行軍方便便方』序 “사람이 태어나 질병으로 고통 받거나와 진군할 때의 질병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거처가 불규칙하니 병 나는 것이 쉽고, 의약을 구하기 어려우니 병 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夫人生以疾病爲苦, 以行軍疾病爲尤苦, 起處不時, 其致病也易, 醫藥不便, 其去疾也難)

11) 『기방류편(奇方類編)』(2권)은 淸 康熙 58년(1719) 吳世昌이 저술한 의방서이다. 저자는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질병을 27개 門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8백여 수의 치료 처방을 이 책에 기재하였다.

12) 나세요가 가리킨 『회집양방(彙集良方)』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같은 서명의 책으로 淸 宣統 3년(1911) 저술된 『회집양방』(8권)과 1925년 저술된 『회집양방』이 있으나 모두 연대가 맞지 않다.

13) 『行軍方便便方』序 “항간에 『기방류편』, 『회집양방』 등의 책이 있으나 번잡하지 않으면 거칠고 어려우니 비록 편히 사용할만한 처방이라고 해도 진군할 때에는 편히 사용할만한 처방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坊間如『奇方類編』, 『彙集良方』等書, 非苦繁多, 卽嫌難難, 雖等之便方也, 而行軍難言方便矣)”

14) 『行軍方便便方』序 “처방이 조금이라도 강하거나 약이 조금이라도 구하기 어려운 것들은 모두 수록에서 제외하여 병사들이 갑자기 병들어 의사가 없어 진료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복용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凡方之稍峻, 藥之稍僻者, 概不錄, 以便夫從戎倉猝不醫不診而服之有裨, 則不必夙習之而始集之也, 亦固其所)”

15) 『行軍方便便方』卷1 「備豫」 “諸葛乾糧方. 用白茯苓(二斤) 白麪(二斤) 乾薑(一兩) 米(二升) 山藥(一斤) 麻油(半斤) 芡實(三斤), 各味蒸熟乾爲末, 遇軍情緊急, 每服一匙, 新汲水下, 一進一服, 可免飢渴, 氣力倍充相傳. 方出武侯.”

16) 『行軍方便便方』卷1 「備豫」 “用烏梅(一斤), 以好醋五斗, 浸一周時, 晒乾, 再浸再晒, 以醋盡爲度. 搗爲末, 和爲丸, 如芡實大. 食時投一二丸於湯中, 卽成好醋(齊氏要術).”

17) 『行軍方便便方』卷1 「備豫」 “乾茶方用白糖·薄荷(各四兩) 白茯苓(三兩) 甘草(一兩), 共爲細末, 煉蜜爲丸如棗大. 每含一丸, 可行千里之程, 曰千里茶(古今秘苑).”

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사탕이라고 할 수 있다. 간식을 겸한 식량을 만드는 썸이다.

이 편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諸葛乾量法二方, 辟穀不飢十一方, 煮石充飢二方, 乾鹽法一方, 乾醋法三方, 乾醬法一方, 乾茶法三方, 求泉水法二方, 諸葛種菜法一方

## 2.2 「두방(杜防)」

오늘날 군대에서 생기는 의료 문제하면 보통 外傷을 떠올리는 것과 달리, 저자는 오히려 낮선 환경이나 기후 및 음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보다 우선시 하였다.<sup>18)</sup> 다수의 병사들이 집단적으로 발병할 수 있어 전투 이전에 이미 많은 전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군영에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무척 위험하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영에서 빠르게 전염되어 다수의 사상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영 중에 전염병이 돌아 병사들이 죽는 것을 ‘군기(軍氣)’라고 따로 지칭할 정도로<sup>19)</sup> 매우 위중한 문제였다.

「두방」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법들이다. 오늘날에도 낮선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면 그 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시에는 병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전염되는 질병을 앓으면 이것을 귀신이나 벌레, 혹은 자연의 사특한 기운으로 인해 생긴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본서에도 고독(蠱毒), 온역(瘟疫), 귀괴(鬼怪), 산람장기(山嵐瘴氣), 귀매(鬼魅) 등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실었다. 드물지만 현대적 위생의 개념이 드러난 부분도 있다. 군영 내의 전염병인 군기(軍氣)가 돌 경우, 처음 전염된 사람의 의복을 증기로 썬서 전염을 방지하는 방법이 그것

18) 이것은 전통사회 군진의학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조선에서 간행된 『軍中醫藥』이라는 군진의학 전문서에도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 자세하다. 박상영, 한창현, 안상영, 권오민, 안상우, 『軍中醫藥』 翻譯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3(1):31-46. 2010.

19) 『行軍方便便方』 卷1 「杜防」 “隨時辟瘟疫法 …… 遇軍營中疫氣傳染, 死亡相繼, 號曰軍氣.”

이다.<sup>20)</sup> 이는 일종의 현대적 살균소독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뱀을 쫓는 방법[辟蛇五方]이나 현지에서 조달한 물과 음식을 먹고 생긴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耐服異鄉水土一方, 諸獸諸鳥諸魚諸肉諸果諸菌諸水之有毒者共七則] 등은 진군 중에 숙식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안된 방법들도 함께 실려 있다.

한편, 이 편 말미에는 술을 멀리하게 하는 처방 두 수[戒酒二方]가 있다. 군대가 남자들이 모여 집단생활을 하는 곳인데다 목숨을 건 군사 작전은 정신적 긴장의 연속이다. 이 때에 술은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병사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군대 기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술을 마시면 통증이 일어나게 한다든가 술을 싫어하게 하는 방법들을 통해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기재해 놓았다.

이 편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辟蠱毒烟瘴瘟疫鬼怪狼虎蛇蝎五兵刺客等害一方, 辟虎狼妖怪一方, 辟山嵐瘴氣一方, 按時預辟瘟疫九方, 隨時預辟瘟疫八方, 辟山精邪魅一方, 辟鬼除邪法一方, 辟蛇五方, 耐服異鄉水土一方, 辟蠱毒五方, 諸獸諸鳥諸魚諸肉諸果諸菌諸水之有毒者共七則, 戒酒二方, 戒鴉片烟癮三方

## 2.3 「요상(療傷)」

실제 전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외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세 번째 편인 「요상」에서 다루고 있다.

먼저 조창(鳥槍, 화승총의 일종) 및 화살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경우를 맨 처음 설명하였다. 총알과 화살이 살 깊이 박히게 되는 것이 주요한 문제였는데, 박힌 총알이나 화살촉을 빠져나오게 하고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 목적이었다. 이어 칼과 창으로 인한 상처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칼과 창으로 생긴 외상은 상처가 크고 출혈이 그치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였다.

20) 『行軍方便便方』 卷1 「杜防」 “隨時辟瘟疫法 …… 將初病疫氣人貼肉布衫, 於蒸籠內蒸一位香久則全軍不染.”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외용제로 출혈을 그치게 한 뒤에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행해졌다.

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맞거나 넘어져 생긴 타박상이나 관절이 틀어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경우였다. 광범위하게 피하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시간을 다투는 상처는 아닐지라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처치를 잘못했을 경우 적지 않은 후유증을 동반했다. 따라서 화살이나 칼 등으로 생긴 상처에 가루나 고(膏) 형태의 외용제를 많이 사용한 것에 반해, 이 경우에는 외용약 뿐만 아니라 내복약을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몸의 회복을 돕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관절이 뒤틀리거나 부러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충격이 심하면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관절과 뼈를 맞춘 뒤에 외용제나 내복약으로 상처의 회복을 도왔고, 정신을 잃은 경우에는 어혈(瘀血)에 사용하는 약재들을 사용하였다.

이 밖에 끓는 물이나 끓는 기름에 입은 화상에 대한 처방들[治湯火傷十六方, 治熱油傷一方]은 공성전의 참혹함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람이나 말에게 물린 상처 치료법[治人咬傷五方, 治馬咬傷二方]은 교전 시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기타 행군 중에 다리를 접질리거나 말에서 떨어지는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처방을 설명해 놓았다.

이 편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治烏鎗鉛子箭簇入肉三方, 治中箭毒三方, 治金瘡出血不止四方, 治金瘡久不結口一方, 治金瘡應急四方, 治金刀傷十五方, 治金瘡惡心一方, 治金瘡腸出一方, 治金瘡不合口一方, 治刀傷頸顛一方, 治撲打損傷九方, 治頭面跌撲青紫一方, 治折傷股臂九方, 治接骨消腫止痛二方, 治挫損內傷一方, 治跌損外傷一方, 治跌打損傷舒筋活血一方, 治跌閃腰痛三方, 治跌傷青腫一方, 治損目破睛一方, 治跌傷瘀血二方, 治損傷危急一方, 治墜馬瘀血一方, 治損傷頭腦骨破手足折一方, 治湯火傷十六方, 治火燒焦爛出蟲如蛆一方, 治熱油傷一方, 治火燒昏迷作熱一方, 治人咬傷五方, 治馬咬傷二方, 治虎傷二方, 治瘋狗凡狗咬傷八方, 治蛇咬傷

四方, 治蜈蚣咬傷四方, 治毒蜂螫傷一方, 治土塵蛇咬傷三方, 治蜘蛛一切咬二方, 治破傷風九方

## 2.4 「유질(愈疾)」

「유질(愈疾)」은 일반 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온역(瘟疫), 상한(傷寒) 등 외감질환을, 중반부에서는 두통(頭痛), 아통(牙痛), 구토(嘔吐), 해수(咳嗽) 등 잡병질환을, 후반부에서는 용저(癰疽), 정창(疔瘡) 등의 피부질환을 다루었다.

외감질환 부분에서는 주로 전염성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일반 의서에서는 주로 상한(傷寒) - 온역(瘟疫)의 순서로 질환을 설명하지만, 여기에서는 온역(瘟疫)을 앞에 두었고 전염성 질환을 의미하는 시기(時氣)에 의한 문제를 아울러 다루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영 내의 전염성 질환의 문제를 깊이 인식한 결과이다. 이어 상한(傷寒)에 대한 처방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온역 치료 처방과 유사한 처방들을 위주로 실어 놓았다. 인용한 서적에 따라 온역, 시기, 상한 등 사용한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전염성이 높은 질환과 관련된 처방을 나열하고 있다.

가장 첫머리에 온역 치료 처방으로 제시된 갈행군산(葛行軍散)은 녹두(綠豆)와 마황(麻黃) 두 가지 약재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한 치료제인 무후행군산(武侯行軍散)의 경우, 마황(麻黃), 천궁(川芎), 백지(白芷), 소엽(蘇葉), 석고(石膏), 감초(甘草), 녹두(菉豆)<sup>21)</sup>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온역과 상한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으나 약제 구성만을 놓고 보면 치료 목표가 같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대다수의 처방들이 갈행군산이나 무후행군산처럼 산제(散劑)로 이루어져 있어 군사 작전 중에 어려운 약재 수급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재를 대량의 산제로 만들어 휴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 복용하기는 전략이다.

21) 『行軍方便便方』 卷2 「愈疾」 武侯行軍散. 治傷寒未過三日, 用麻黃(九兩) 川芎 白芷 蘇葉 石膏 甘草(各一兩) 菉豆粉(二兩), 共爲細末, 每一錢, 無根水調服.

다른 병증에 비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은 광란(霍亂), 사증(痧證), 그리고 이질(痢疾)이다. 이들 역시 표현된 바는 다르지만 극심한 설사나 구토를 동반하는 질환들이다. 인체 내부에 직접적인 수액공급 방법이 없었던 과거에는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구토와 설사를 할 경우 체액 소실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군사들의 경우 낮설고 척박한 기후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물과 음식의 변화, 전염 질환의 발병 등으로 구토와 설사의 발병 확률이 높다. 이 때 적절하게 처치하지 않으면 전투력을 장기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유질’ 부분에서 광란, 사증, 이질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황을 방증해 준다.

후반부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부질환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방법이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분량으로 보더라도 전체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들 질환들은 단순한 피부질환이라기 보다는 오늘날 봉와직염과 같이 인체의 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작은 상처로 인해 발병하는 체표의 염증들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봉와직염의 경우 현대 군영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량의 항생제로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약화된 면역력으로 인해 때때로 쉽게 낫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개인의 영양상태와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던 과거 군영에는 이런 문제들이 보다 빈번했을 것이다.

이 편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治瘟疫七方, 治傷寒十三方, 治中風中疾十五方, 治中暑二方, 治中濕三方, 治瘧疾七方, 治霍亂十五方, 治痧症十八方, 治泄瀉痢疾二十三方, 治鼓脹八方, 治發黃症七方, 治吐血失血七方, 治頭痛八方, 治眼疾八方, 治耳疾五方, 治鼻疾二方, 治舌疾四方, 治牙痛八方, 治喉疾五方, 治心胃氣痛十一方, 治腹中痞疾四方, 治嘔吐及胃膈噎十二方, 治咳嗽痰喘七方, 治腰痛七方, 治腹痛二方, 治自汗盜汗二方, 治癲狂三方, 治大小便下血二方, 治大小便不通三方, 治脚氣三方, 治紅白淋五方, 治遺精三方, 治陰囊腫痛一方, 治大麻風三

方, 治鵝掌風三方, 治鶴膝風三方, 治流火腫毒二方, 治發背發腦七方, 治肺癰一方, 治搭背癰疽一方, 治疔瘡九方, 治對口瘡四方, 治頑瘡三方, 治臙瘡三方, 治坐板瘡二方, 治下疳瘡三方, 治雜瘡八方, 治癭瘤瘰癧六方, 治楊梅瘡三方, 治痔瘡並脫肛十五方, 治魚口便毒三方

## 2.5 「구해(救解)」

「구해(救解)」는 응급질환에 대한 처치법과 중독증에 대한 해독법을 포함하고 있다. 전반부에는 응급질환을 다루었는데, 중악(中惡), 열사(熱死), 폭사(暴死), 익사(溺死) 등에 대한 치법이 실려 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자기 죽으려고 하는 경우[救暴死身冷無疾一方, 救涎潮暴死一方]도 있고 동상[救凍死一方]이나 익사[救溺死三方]처럼 원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에서 열사나 동상은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덥거나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군대를 움직이면 더위나 추위로 인해 전투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과거에는 인간 개개인의 전투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무더운 한여름이나 추운 동절기에는 사실상 전쟁이 힘들다. 따라서 출정을 할 때에 시기를 살피는 일이 중요했다. 또 전쟁이 길어져 여름이나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 전쟁을 멈추거나 포기하는 예도 있다.

후반부는 중독증 치료법을 모아 놓았는데, 오두독(烏頭毒), 짐독(鳩毒) 등 독초를 먹고 생긴 문제뿐만 아니라 말고기[馬肉], 개고기[犬肉] 등 일반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경우를 다루고 있다. 「비에」에서 보았듯이 전장에서 군량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군량이 부족해지면 군사들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주변의 식물이나 동물들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독이 있는 풀을 먹거나 채집 과정에서 독충이나 독초에 상하거나 병든 가축 혹은 이미 죽은 가축을 먹는 경우 병을 얻게 된다. 「구해」의 후반부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된 치료법들이다.

이 편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救暴死身冷無疾一方, 救涎潮暴死一方, 救中惡卒死二方, 救中惡中邪卒死及縊溺壓魔打死驚怖死一方, 救熱死二方, 救凍死一方, 救中寒暴死一方, 救溺死三方, 救跌壓死二方, 救吐利不止卒死一方, 救猝魔死一方, 救驚怖死一方, 救烟薰致死一方, 救縊死一方

解中鈎吻(卽斷腸草)毒二方, 解中莽草毒一方, 解中烏頭毒一方, 解中萇若毒一方, 解中豚魚毒四方, 解中鳩毒一方, 解中鹵鹽毒一方, 解一切一方, 解中食馬肝馬肉毒二方, 解中牛馬肉毒生疔瘡一方, 解中牛肉毒一方, 解中豬肉毒一方, 解中犬肉毒一方, 解中羊肉毒一方, 解中鵝肉毒一方, 解中鴨肉毒一方, 解中六畜毒一方, 解中諸魚毒一方, 解食蟹中寒毒一方, 解中諸菌毒一方, 解中蠶毒一方, 解中糲毒一方, 解食中蛇蟲毒一方, 解食中蜈蚣毒一方, 解食瓜過多腹脹一方, 解食菱過多腹脹一方, 解中苦杏仁毒一方, 解中楓耳毒一方, 解中金銀毒一方, 解中輕粉毒一方, 解中水銀毒一方, 解石並諸毒一方, 解中砒毒二方, 解中巴豆毒一方, 解中諸物毒一方, 解中一切毒齒黑指甲青一方, 解中鱗鱉蝦蟆毒一方, 解碗絲毒一方, 解中桐油毒一方, 解天行熱氣中野菜死馬諸肉穢毒一方, 解一切草藥毒一方, 解中斑蝥毒一同, 解草蠱金石毒一方, 解金蚕蠱毒一方, 試一切蠱毒一方, 解一切蠱毒六方

## 2.6 「유여(遺餘)」

「유여(遺餘)」에는 앞의 「요상」, 「유길」, 「구해」에 미처 실지 못했던 여러 가지 치법들을 주로 담고 있다. 외상(外傷)이나 중독(中毒)에 대한 주제들은 앞에서 다룬 주제들과 일치하지만, 상대를 자백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군마(軍馬)의 치료법 등은 이 편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정보는 승패를 가름하는 요소다. 하지만 정보의 진위를 가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죽충(竹蟲)과 죽황(竹黃)을 이용한 자백법[令人自言其誠一方]은 적군 포로를 자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군진의서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후반부의 내용은 대부분 말에 대한 것이다. 말

은 군사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존재로서, 말의 병은 곧 군사력의 저하를 의미한다. 따라서 말이 병들었을 경우를 대비한 치료법[治馬患諸病二十五方]에서 말을 치료하는 방법들은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해 설명하였다. 말 치료법을 살펴보면, 말이 검은 땀을 흘리는 경우[馬黑汗], 말이水草를 먹지 않는 경우[馬結熱起臥戰不食, 馬脾胃有傷不食], 말이 배가 아픈 경우[馬起臥肚痛], 말의 소변에 문제가 생긴 경우[馬尿血, 馬結尿] 등 다양한 병증들을 다루고 있다.

이 편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臨軍有威一方, 避瘟氣一方, 避五兵盜賊一方, 辟刺客奸邪一方, 涉水不畏風波蛟龍一方, 入水能浮一方, 辟一切蠱蟲一方, 蛇入竅一方, 手足頑麻一方, 蛇纏人足一方, 蛇刺傷一方, 毒蠍螫傷一方, 食蠶忌二則, 解中菌毒三方, 治誤食銅物一方, 食瓜忌食鮓忌共二則, 百蟲入耳一方, 竹木刺肉成瘡一方, 針入肉一方, 誤吞螞蟻一方, 誤吞針入腹一方, 治霍亂並金瘡一方, 治傷寒狂走一方, 治瘧疾一方, 治中射工毒一方, 令人自言其誠一方, 戒酒一方, 辟兵一方, 解一切草木毒一方, 治刃傷出血一方, 辟蚊蚋一方, 治腹內應聲蟲一方, 治毒蜂螫一方, 治癰腫及蜈蚣咬傷一方, 治損折肢體一方, 治蠱毒一方, 治中鰓鮓肝毒一方, 治大風癩症一方, 治瘰癧頸腫一方, 治鬼箭風一方, 治偏頭痛一方, 治耳暴聾二方, 治腹有蟲及蟲痛二方, 治下疔落一方, 治瞳人反背一方, 天絲並兔毛入目一方, 治眼目倒毛入肉一方, 治眼邊癢爛一方, 治鼻中生毛長尺餘一方, 治口內生肉毳如線一方, 治舌長數寸一方, 治交腸症一方, 治嗜酒腹中成蠶一方, 治麻骨至死一方, 治一切惡瘡腫毒一方, 治疥癩一方, 治兩腮腫痛一方, 治風熱腮腫一方, 治鼻痔鼻瘡二方, 治無名腫毒一方, 治水蛾射中人影成瘡一方, 治鬼面瘡一方, 治汗癩二方, 治膝瘡一方, 治禿頭癩癩一方, 治患背腫一方, 治脚氣痛一方, 治手足凍裂一方, 治脚底紅腫熱痛一方, 治手生蛇頭瘡二方, 治誤吞金銀鐵物二方, 治骨鯁喉二方, 喂馬易肥一方, 治馬患諸病二十五方, 人馬兩便一方



### 3. 『行軍方便便方』의 의의

전통사회에서도 의학의 발달은 군사력의 증가를 초래하고, 전쟁의 경험은 의학의 발달을 촉진한다.<sup>22)</sup> 병사 개개인의 체력이 곧 전력(戰力)으로 직결되었던 전통사회에서는 병사들이 병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노동력 및 전투력을 발휘해야만 했다. 따라서 군사 작전에서 건강은 병사 각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군진의학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제1차 아편전쟁 후에 만들어진 『행군방편편방』은 군진의학 전문서로서 그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전쟁에 나가기 전 식량을 확보하는 문제를 시작으로, 현지에서 조달한 식자재로 인한 질병이나 낯선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풍토병 및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이어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외상을 치료하는 방법, 기타 출병하여 발생하는 질병에 부족한 약재로 대응하는 방법, 각종 구급질환과 중독증을 해결하는 방법 등이 구비되어 있다. 군사들이 술을 끊도록 만드는 방법이나 적군을 자백시키는 방법 등은 저자가 군생활을 오래 한 것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세세하다.

이 책은 의학 외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맥락을 함축하고 있다. 우선 책의 저자 나세요는 당시 지식인으로서 의사가 아니었다. 그의 의학 지식은 개인의 질병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는 군진의를 집필하기에 이른다. 이는 당시 식자층이 가졌던 국가에 대한 위기감과 부국강병의 욕구가 드러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본서는 의서 이외에 다양한 서적들을 망라하고 있다.<sup>23)</sup> 이는 청대(清代) 필기류(筆記類) 및 총서

류(叢書類)의 유행이 가져온 결과로 전문지식이 ‘총서’라는 형태로 수집된 뒤에 전문 분과 지식으로 재편되는 단면을 보여준다.<sup>24)</sup>

마지막으로 이 책은 중국 전통사회의 군사 전략을 추론하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책에 사용된 약재, 책에서 다루고 있는 상처와 질병의 종류와 양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당시의 전투 상황이나 식습관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III. 결론

『행군방편편방』은 상대적으로 드문 군진의학 가운데 전통시대 전쟁의 양상을 추론할 수 있는 사료이다. 이 책은 군사 활동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의학 지식들을 모아 엮은 군진의학 전문서적으로 청대(清代) 지식인이었던 나세요(羅世瑤, 연대미상)에 의해 함풍 2년(咸豐2, 1852) 저술되었다. 모두 3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에(備豫)」, 「두방(杜防)」, 「요상(療傷)」, 「유질(愈疾)」, 「구해(救解)」, 「유여(遺餘)」의 6개의 대문(大門) 아래 684개의 처방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제1차 아편전쟁(1839-1842)이 끝난 뒤에 저술되었다.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부국강병(富國強兵)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이어졌다. 한편 학술적으로는 총서(叢書)가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미로운 이치를 궁구하는 것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엮어내는 것으로 지식인의 역할은 크게 바뀌었다. 당대 지식인 나세요가 방대한 문헌을 근거로 군진의학에 대한 이 책에 저술한 것은 이러한 시대정신과 학술적 조류

22) 이현숙. 몸, 질병, 권력: 통일전쟁기 신라의 군진의학. 역사와 문화. 2003. 6집. pp. 11-41.

23) 본서에 자주 인용되는 서적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醫書類: 『肘後方』, 『食療本草』, 『本草綱目』, 『景岳全書』, 『名醫類案』, 『食物本草』, 『洗冤錄』, 『本草拾遺』, 『千金方』, 『良方集要』, 『滙集良方』, 『開寶本草』, 『奇方類編』, 『衛生易簡方』 등. 軍書類: 『武備志』, 『武備秘書』 등. 農書類 및 雜書類: 『山居四要』, 『濟民要術』, 『農桑輯要』 등. 筆記類 및 叢書類: 『奇門大

全』, 『行厨集』, 『便民集』, 『古今秘苑』, 『敬信錄』, 『朝野僉載』, 『經驗良方』, 『五雜俎』, 『荆楚歲時記』, 『事林廣記』, 『西陽雜俎』, 『菌譜』, 『物類相感志』, 『事物紺珠』, 『東坡雜記』, 『博物志』 등.

24) 박상영, 오준호, 권오민. 朝鮮後期 韓醫學 外延擴大의 一局面.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7(3):1-8. 2011. “조선 후기 어느 시기가 되면 중국에서 시작된 叢書 閱讀 현상이 조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그 내용의 일부를 抄해서 成冊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 가운데는 의학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金匱小抄』와 『耳目口心書』는 이러한 지적 풍토 하에서 산생된 저작물이다.”

때문이다.

책 속에는 통념적으로 알고 있던 외상(外傷) 대 한 치법들도 다수 있었지만 휴대용 식량을 만드는 건법(乾法), 군대 내 음주(飲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주법(戒酒法), 전염병 치료법, 적군을 자백시켜 정보를 얻는 방법, 군사용 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각종 치법 등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군대와 전투에 대한 생각들이 투영되어 있다.

본서는 군진의학 분과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역사학, 군사학 등 다양한 융합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七). 人民军医. 10:53-58. 1957.

<단행본>

1. 薛清泉. 『中國中醫古籍總目』.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7
2. 裘慶元, 『三三醫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온라인자료>

1.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Available from:URL: <http://www.nl.go.kr/korcis>

## 참고문헌

<논문>

1. 박상영, 오준호, 권오민. 朝鮮後期 韓醫學 外延擴大의 一局面.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7(3):1-8. 2011.
2. 박상영, 한창현, 안상영, 권오민, 안상우. 『軍中醫藥』 翻譯 研究. 대한한의원전학회. 23(1):31-46. 2010.
3. 이강범. 아편전쟁 전후에 제기된 지식인의 윤리문제.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7:178-179. 2003.
4. 이현숙. 몸, 질병, 권력: 통일전쟁기 신라의 군진의학. 역사와 문화. 6:11-41. 2003.
5. 范行准. 中国古代军事医学史的初步研究 (一). 人民军医. 3:42-50. 1957.
6. 范行准. 中国古代军事医学史的初步研究 (二). 人民军医. 4:40-45. 1957.
7. 范行准. 中国古代军事医学史的初步研究 (三). 人民军医. 5:49-52. 1957.
8. 范行准. 中国古代军事医学史的初步研究 (四). 人民军医. 7:54-60. 1957.
9. 范行准. 中国古代军事医学史的初步研究 (五). 人民军医. 8:51-60. 1957.
10. 范行准. 中国古代军事医学史的初步研究 (六). 人民军医. 9:66-71. 1957.
11. 范行准. 中国古代军事医学史的初步研究